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8.25.(금) 10:30, 김인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8월 27일 일요일 7시 30분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정만 공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은 오늘 오후 3시 통일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023년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검토할 예정으로 차관 인사 말씀까지 공개가 되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저녁에 조중통 통해서 강순남 국방상의 담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마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고위 당국자가, 북한 고위 당국자가 낸 첫 번째 공식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일단 한번 여쭙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 이벤트인데 국방

상 담화를 첫 번째로 그렇게 고위 당국자가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위주로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거기 보면 조로 무기 거래설을 띄웠다고 미국 쪽을 비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협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북러 무기 거래설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보시는지 그렇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중통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반응이 나온 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자 실명 보도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상 명의로 첫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중통을 통해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그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 지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고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인정으로 보는데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최근 북러 간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

한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의 정상적 협조를 항변하는 북한의 주장은 이런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어떠한지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위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하세요? 어제 담화가.

<답변> 거기에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언급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의도가 어떠한지 저희의 입장은 불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2차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서 저번에, 5월 발사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조선중앙통신 외에 노동신문이나 대내 매체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왜 저번에도 조금 한참 나중에 대내 매체에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오후에 갑자기 조중통에서 3개의 담화가 연달아 올라오면서 지금 대외 매체에다가는 열심히 오염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위성에 대한 이런 비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번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반박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위성 관련된 메시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까지 대내 매체에는 위성 관련된 보도, 소위 정찰위성에 관련된 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김덕훈 총리가 며칠 전에 안석 간석지 대규모 침수 사고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강도 높은 질책 받았었는데요.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서요. 통일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이례적인 공개 활동 보도가 있었고 통일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중통의(※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노동신문' → '중통'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전 관련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